

특특뉴스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첫 수출

국내에서 생산한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가 처음 수출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남인 27일 전북 익산 산업단지에서 있는 두산퓨얼셀 본사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 기념 출하식'이 열렸다.

이번에 수출되는 발전용 연료전지는 4기로 총 1.8MW, 1,300만달러(약 153억원) 규모다.

수출된 물량은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돼 7개 동(400가구)의 아파트와 1개 동의 상업 건물에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은 이번이 첫 사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탄소중립 추세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TP, '탄소중립' 기반사업 육성 나선다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2023년 말까지 168억 투입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 이하 전남TP)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발맞춰 친환경 분해성 고분자 사업을 위해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에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남TP가 전남도, 여수시와 공동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기

획한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은 올해 최종 선정돼 국비 60억원, 지방비 106억원 등 총 예산 168억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추진된다.

분해성 고분자산업은 농업용, 어수산업용 기자재, 포장재, 생활용품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회용품 및 비닐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자연환경에서 완전 분해되는 제품으로 대체하는 산업으로, 석유화학 및 바이오매스 기반의 생분해성 기술을 통칭한다.

실제 작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영농폐

기물(폐비닐) 발생량 및 해양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1위 수준에 달한다. 이에 공단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해성 고분자소재를 개발·보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TP 또한 지난 2018년 함평에 위치한 농업용 필름 선도기업인 금성필름과 지역 대표 기업 남해화학과 함께 남해화학에서 생산되는 부산석고를 적용한 비료성분을 가진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 필름을 개발, 마늘, 고구마, 양파 재배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해양 폐기물 처리 일환으로 전남 나주에 위치한 나산 플라스틱과 생분해

성 해양 부표 생산 및 실증 기술 개발도 진행 중에 있으며, 생활계식품포장재 플라스틱 처리를 위해 내년 출시를 목표로 전남 영암에 위치한 KC와 공동으로 생분해성 리필용 파우치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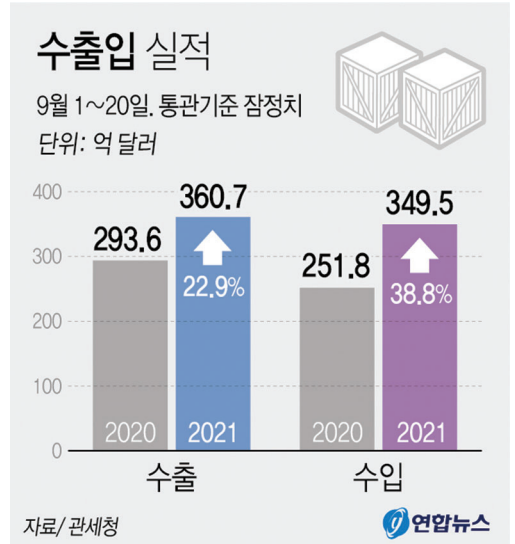
이번 사업을 위해 지역 내 관련 기업인 이플리텍(여수), 제로하우스(함평), 대신물산(장성), 대신에니텍(영광), 나산프라스틱(나주) 5개사에 전남TP에서 보유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가공관련 기술을 이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해양 부표용 단열 및 소음차단용 비드폼 개발, 자동차 부품용 생분해성 발포 제품,

자동차 부품 포장재용 생분해성 대전방지 포장박스 등에 대한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TP는 개발된 친환경 생분해 제품이 국내외 수요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소재에서 제품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및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기존 고분자소재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생분해성 고분자소재 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그래픽 경제



9월 수출금액 전년비 22.9% 증가

9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61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2.9%(67억달러)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이에 따라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1.3%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을 보면 반도체(7.7%), 철강제품(48.8%), 석유제품(95.0%) 등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한국전력은 최근 나주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전KDN과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제공

한전, 중기 정보보안 강화 지원

KISA·한전KDN과 업무협약

한국전력공사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한전은 나주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전KDN과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을 위한 사업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장복 한전 상생관리본부장과 최광희 KISA 본부장, 권오득

한전KDN 본부장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다짐했다.

한전은 KISA, 한전KDN과 중소기업에 보안관리, 공격탐지, 보안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24시간, 365일 상시 관제가 가능한 전력사이버안전센터의 인력과 보안 장비를 활용하고, KISA와 한전KDN은PC 점검 소프트웨어와 원격 보안 지원, 공격탐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돈 벌어요"

광주은행 '저금통적금' 출시 2차 완료 시 0.2% 추가 금리 송중옥 은행장 1호 가입

광주은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소액적립 목돈 마련의 잔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저금통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저금통적금은 1만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매일 자동이체하는 잔테크서비스와 소수점 투자 등을 반영해 목돈마련 재테크와 금융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저금통적금은 최초 가입금액 1원 이상 2년제와 3년제로 가입 가능하다. 추가 적립은 월 적립한도 3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이 적금은 기본금리 연 1.3%(3년제 기준)에 '잔테크서비스로 연 0.6%포인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시 연 0.2%포인트를 추가 제공하는 등 최고 연 2.4%의 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우대금리 이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28일 '저금통적금' 출시를 기념해 1호로 가입했다. /광주은행 제공

벤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저금통적금'에서 제공하는 잔테크서비스는 요즘 금융트렌드로 떠오른 잔테크와 소수점 투자를 반영해 소액적립 목돈마련의 재테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잔테크서비스는 1만원 미만의 자투리금액을 저금통적금으로 매일 자동이체하는 서비스로 자금 부담없이

소액으로 목돈마련을 돕는 금리제대 크형 서비스이다.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이날 '저금통적금' 출시를 기념해 1호 가입자로서

나섰다.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고객의 니즈와 금융트렌드를 반영해 고객님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응원하고자 출시한 '저금통적금'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PARK 시스템 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PARK 시스템 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